

Urban Regeneration News Letter  
공주시 도시재생소식지



- 01 공주시 옥룡동 마을관리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 02 공주시 제1회 은개골 강변축제 개최
- 03 2019 공주시민대학 마을가꾸기분과 12기 수료
- 05 주민과 함께하는 하반기 소규모주민공모사업
- 06 공주시 도시재생 이모저모
- 07 오래 볼수록 더 사랑스러운 공주 도시재생 이야기
- 09 우리마을 이야기 옥룡동 풍경전
- 10 공주, 세종 함께하는 이야기

토크는 이야기하다, 투유는 시민(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유는 흐를유 문화의 향기가 흐름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본 은개골 마을풍경



## 공주시, 옥룡동 마을관리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옥룡동 마을관리협동조합(이사장 이광춘)은 지난 8월 22일(목) 도시재생지원 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주민 스스로 마을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자조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며, 옥룡동은 지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및 2018년 국토교통부 마을관리협동조합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설립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말 준비단 결성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친 주민 회의와 실무교육 등 노력의 산실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창립총회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발기인과 설립 동의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 공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은 옥룡동 마을관리 협동조합 창립선언에 이어 임원 선출과 정관 확정 등 설립에 필요한 안건을 승인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로써 옥룡동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설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으며 국토교통부 정식 승인을 위한 심사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

조합설립이 승인되면 옥룡동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마을상점 운영사업과 은개 마을해설사 운영사업, 마을집수리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지역의 자생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핵심 주체로 주도해 나가게 된다.



# 옥룡동, 제1회 은개골강변축제 개최



지난 10월 19일(토)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인 옥룡동 은개골에 위치한 '은개골 역사공원'에서 '제1회 은개골강변축제'가 개최되었다.

옥룡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옥룡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축제는 계획부터 진행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도시재생을 알리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부 '어서와유, 반가워유 도시재생축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을 활용해 옥룡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서 직접 기획·추진하였다.

이번 축제는 올해 초 개장한 은개골 역사공원을 주 무대 삼아 지역주민 자치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됐으며 이어 은개골 아리랑 연가발표와 합창 등이 펼쳐졌다. 또한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직접 참여·운영한 도시재생 홍보부스와 마을 기록화사업 '옥룡동 풍경전' 전시, 지역먹거리를 활용한 먹거리 부스 운영 등 풍성한 볼거리와 참여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제1회 은개골 강변축제는 주민화합과 도시재생을 주제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역주민들은 이번 축제 개최를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내년부터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하나로 '마을축제 특화사업' 추진이 예고되어 있어 이번 축제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도시재생지구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마을축제로 자리 잡으리라 기대한다.

# 2019 공주시민대학 마을가꾸기분과 12기 수료



2019년 8월 14일(수) 개강식을 시작으로 7회에 걸쳐 진행된 2019 공주 시민대학(마을가꾸기분과 12기) 교육이 10월 2일(수) 수료식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공주시민대학은 나도 마을해설사 분과(1분과)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활성화 분과(2분과), 총 2개 분과로 진행이 되었으며 각각 7명, 13명 등 총 20명의 수료생을 배출해냈다. 교육생들은 우리 마을을 되돌아보며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주민의 역할과 자세 등에 대해 생각해본 계기가 되었다.

## 1주차



개강식 및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진행 후 각 분과별 교육이 진행되었다. 1분과는 마을자원찾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매핑 기법에 대한 설명, 2분과는 공주시와 상생협력관계에 있는 세종시 김동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도시재생 이론 강의가 이루어졌다.

## 2주차

각 분과별로 본격적인 교육이 진행되었다. 1분과는 마을해설의 의미와 해설사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으며 타 지역 마을해설자원 사례도 함께 공유했다. 2분과는 도시재생에서 주민협의체의 역할과 필요성, 주인의식 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 3주차



3주차 과정에서는 1분과는 교육생들이 직접 마을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자원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분과는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고 실제 타 지역 운영사례도 함께 살펴 보았다.

## 4주차

4주차 과정에서는 1분과는 3주차 당시 현장 조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원을 유형별로 분류해보고 직접 지도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2분과는 주민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마을회의, 주민리더 발굴, 소모임 활성화에 대해 교육생들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 5주차



향림마을 선진지 견학모습

5주차 교육은 타 지역 선진지 견학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향림마을을 방문하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활성화 과정 사례강의, 마을해설 프로그램 현장투어에 참여하며 도시재생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 6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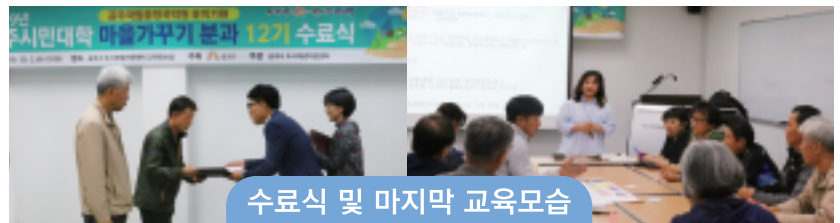


분과별 교육모습

6주차 과정에서는 1분과는 서울시 향림마을 답사경험을 토대로 옥룡동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마을해설지도를 만들어 보았다. 2분과는 주제를 바꿔 도심지에 발생하는 빈집문제를 인식하고 도시재생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 7주차

7회에 걸친 교육의 결실을 맺는 수료식이 진행되었으며 이번 시민대학 과정에서는 총 20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다. 수료식 직후에는 분과별로 마지막 수업시간을 가졌으며 1분과는 마을해설프로그램, 2분과는 빈집 활용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을 직접 기획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수료식 및 마지막 교육모습





## 주민과 함께하는 하반기 소규모 주민 공모사업

공주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고 창의적인 사업 발굴·육성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옥룡동 3개 단체가 선정되어 3개월간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역주민들의 큰 호평속에 마무리 되었다.

### 어서와유, 반가워유 옥룡동 도시재생 축제 / 옥룡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옥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공을 위해 뭉친 옥룡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우리 마을은 우리가 만들어간다! 기획에서 축제개최까지 지역주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번 마을축제는 큰 호응과 함께 주민화합과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속에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마을축제 행사

### 은개골 아리랑연가 창작컨텐츠 지원 및 활용사업 / 옥룡아리랑회



은개골 아리랑 공연

아리아리랑~스리스리랑~ 옥룡동 은개골을 주제로 한 은개골 아리랑이 태동하고 있다. 은개골 아리랑 창작, 주민과 함께하는 공연까지! 이번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은개골과 우리소리를 알리고 지역 문화예술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선사해주었다.

### 옥룡동 풍경전 / 옥룡어울림예술회

옥룡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옥룡어울림예술회는 우리 마을을 기억하고 나아가 마을을 널리 홍보하고자 옥룡동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하늘에서 바라 본 우리마을 영상, 마을 사진기록, 수채화로 옮긴 감성적인 그림까지! 골목과 오래된 집, 시간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주민의 시선으로 담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옥룡동 풍경전 작품

## 2019년 10월 11일 공주시, 도시재생정책 국토부장관상 수상

공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재생부문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하숙마을과 테마골목길, 근대문화를 테마로 한 도시재생사업이 우수한 점수를 얻으며 선진적 도시정책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이 같은 결실은 민관이 협치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평가된다.



# 공주시 도시재생 이모저모

### 2019년 8월 22일 홍성군 오관리 방문단 공주시 도시재생 현장 방문 ①

홍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오관리 지역주민 30여명이 도시재생사업 선도사례 공주지역을 방문하여 공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테마골목길, 공주하숙마을, 기독교박물관, 풀꽃문학관 등을 견학하였다.

### 2019년 8월 28일 청주시 우암동 방문단 공주시 도시재생 현장 방문 ②

청주시 우암동 현장지원센터와 지역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탐방단이 도시재생 선도사례로 공주를 방문하였다. 공주문화 예술촌, 제민천, 테마골목길 등을 돌아보며 도시재생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19년 9월 7일 공주하숙마을 <원도심 주민과 함께하는 하숙마을 공연> 개최 ③

공주 원도심 도시재생 상징인 공주하숙마을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퀴즈, 가수 김희진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 2019년 9월 26일 세종시 침산리 새뜰마을 방문단 공주시 도시재생 현장 방문

공주시와 상생협력관계인 세종시의 조치원 침산리 주민들 10여명이 공주 도시재생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테마골목길을 둘러보며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생각을 나누었다.

### 2019년 10월 12일~ 공주하숙마을 옛 추억 담기 프로젝트 진행

공주하숙마을은 70~80년대 하숙문화를 테마로 조성된 공간이다. 인력거 체험, 옛 교복체험, 페이스페인팅, 사생대회 등 방문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12월 초까지 운영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 줄 것이다.

### 2019년 10월 16일 2019년 도시재생뉴딜 사업화 지원 사업 선정

중학동 지역주민 모임인 필공주문화연구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 기획한 '사회적 도시재생과의 만남' 교육사업이 LH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7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 10월 21일 서산시 공무원 및 실무단 공주시 도시재생 현장 방문

서산시 도시재생뉴딜팀 공무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이 공주 도시재생현장을 방문하였다. 지난 4월에 이어 2번째 방문이며, 공주 선진사례를 견학하고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관리 주민 방문



도시재생사례 강연



하숙마을 공연





# 오래 볼수록 더 사랑스러운 공주 도시재생 이야기 <sup>1)</sup>

## 사람, 공간, 역사가 이야기가 되다

공주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이나 무령왕릉 혹은 ‘밤(栗)’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바로 공주라고 할 수 있다.

공주시는 유관순 열사가 학창 시절을 보내며 조국독립의 꿈을 키운 곳이자, 메이저리그를 호령했던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실력을 갈고 닦은 곳, 나태주 시인이 수많은 서정시를 낳은 곳이다. 그 외에도 학창시절을 보낸 골프선수 박세리,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를 일깨워준 국창 박동진, 국가(신라)에서 정려(旌閭)를 내려준 ‘우리나라 최초의 효자’ 향덕, 흔치 않은 고려시대에 세워진 정려비각의 주인공인 효자 이복도 공주가 사랑하는 인물들이다. 2) 이들은 모두 공주와 인연을 맺으면서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남기고 있는데,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원도심을 탐방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시는 인물들의 행적과 기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발굴해 테마가로 골목길, 원도심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도시재생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원도심의 다양한 공간과 장소는 시간이 흐를수록 낡음이 아닌 익음의 매력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뉴딜사업 대상지인 중학동은 과거 역사 문화자원들이 집중되어 있어 마치 시간여행을 온 듯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느낌을 준다.

오래전부터 지역의 중심지로 자리잡아 온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날 공주가 있고, 도시재생이 있을 수 있던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 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한자리에 계속 도시가 이어져 온 곳은 정말 희귀하다.

그런 점에서 공주의 원도심은 우리가 아끼고 잘 보존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보물이라고 생각된다. 사람과 공간, 역사가 이야기가 되고 하나의 도시 브랜드가 되어가는 것이다.



유관순과 사에리시 동상



백제문화제 행사 장면

1) 본 기사 내용은 국토연구원 발행 소식지 ‘국토 제457호(2019.11)’에 게재된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임  
2) 출처: 김정섭, 『인물로 본 공주역사 이야기』, 메디치, 2016.



## 소소하고 아름다운 도시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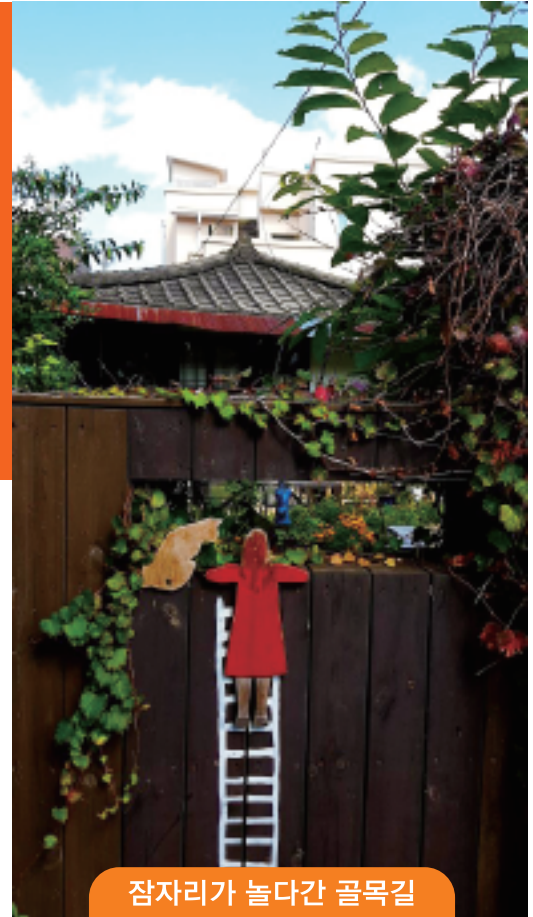
타 지역분들이 공주 원도심을 방문할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있다. 처음엔 “별거 아닌데? 우리랑 다를 게 없는데?” 하다가도 골목 곳곳,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이야기와 자원을 마주하다 보면 그 소소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을 하게 된다.

다양한 도심자원들과 함께 그것을 지키고 가꾸고자 했던 지역주민들과 행정의 노력이 이러한 결실로 나타나지 않았나싶다. 그 결과 지난 4월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대상에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고, 10월에는 2019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재생부문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같은 결실은 민관이 협치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을 통해 원도심을 살고 싶은 도시이자 활력이 넘치는 장소로 가꾸어갈 에너지가 될 것이다.



평택시 방문단 기념사진



잠자리가 놀다간 골목길



공주하숙마을 풍경

# 도시재생뉴딜 탐구생활!!



## Q1.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A1.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100곳 내외 사업지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은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국토교통부에 정식 사업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비 교부와 함께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 공주시는 현재 옥룡동(2017년 선정), 중학동(2019년 선정) 2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Q2. 옥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상황이 궁금해요!

A2. 옥룡동은 사업 선정 후 2018년 8월 활성화계획을 승인받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용지 보상을 진행중이고 동시에 도로 및 마을주차장 정비를 위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어울림센터, LH실버임대주택 등 마중물 사업은 기존계획에서 변경되어 국토부 재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 2020년 상반기에는 마을목욕탕, 가로정비, 어울림센터 공사 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Q3. 그러면 올해 선정되었다는 중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어떤 상황인가요?

A3. 중학동은 사업 선정 후 국토부 정식 승인을 위한 활성화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비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내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플랫폼사업 공사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참고. 2020년내 주요 플랫폼사업(마을 어울림플랫폼, 나태주 문학창작플랫폼, 제민천 창업혁신플랫폼, 공주 걸쳐라운지 플랫폼, 공주역사영상관 및 작은도서관사업) 건축설계공모 및 발주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858-8615~6,840-2281



# 공주-세종 함께하는 이야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sejong0623@daum.net



상인거점시설

## 상인거점시설 개소식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 거점시설이 10월 5일 오후 3시 개소식이 진행되었다. 이곳에서는 지역상인 및 상권공동체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16주에 걸친 상인역량교육, 심화과정교육, 상품개발 및 교육 훈련이 진행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은 사업권역 내 창업지원 및 컨설팅까지 지원해 줄 예정이다.

이세찬 조치원중심시가지 뉴딜현장지원센터팀장이 진행 중이며, 빠르게 진행되는 중심시가지 뉴딜 사업 속에 상인 역량 강화를 통해 탄탄한 상권이 되길 기대한다.

## 제12기 도시재생대학교 개강식



개강식 모습

10월 5일 15시 30분 조치원 상인거점지원시설 주차장에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김종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백기영 도시재생대학교 총장, 이영민, 조치원발전위원회 위원장, 도시재생대학교 학장, 지도교수, 입학생, 관계자 등 320여 명이 참석하여 제12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대학교 개강식이 김동호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백기영 도시재생대학교 총장의 개회사, 이춘희 시장의 인사말 등 도시재생대학교 개강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각계인사들의 메시지가 있었고 이어서 김동호 센터장의 12기 도시재생대학교 운영일정 및 현장중심의 스튜디오 진행과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과정 설명이 진행되었다.

이번 12기에는 총 28개팀 343명이 참여하였으며 박인희 도시환경대학 6개 팀, 정대영 공동체 활성화대학장 4개 팀, 신병윤 세종형뉴딜 대학장 1개 팀, 홍종선 마을경관협정대학장 4개팀, 오광석 중심시가지 뉴딜대학 3개 팀 및 스마트시티전문대학 3개 팀으로 구성되었다. 각 팀의 소개와 함께 개강식 종료 후, 팀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이번 개강식에서 이목을 집중시킨 마을경관협정 대학과 스마트시티 전문대학의 신설로 스마트시대의 문이 열리는 대학으로 변모를 기대하고, 같은날 개관한 상인지원거점시설에서 준비한 과일팩과 맥주시음을 나누면서 참여자 전원이 12월 7일 수료식에 건강한 모습으로 재회를 약속하면서 개강식을 마무리하였다.

## ‘아이랑 문화랑 놀이랑’ 청춘문화제

지난 9월 29일 조치원로 중심가로에서 ‘아이랑 문화랑 놀이랑’이라는 주제로 ‘제3회 2019 조치원로 청춘문화제’가 열렸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최, (사)한국미술협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주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등학교 이하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을’ 또는 ‘청춘문화제’를 주제로 ‘아이랑 문화랑’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려 행사가 시작되는 12시부터 가족단위의 많은 시민이 참여하였고, 사뭇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 어린 화가들이 한 폭의 종이에 주제를 담은 그림을 그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들은 돛자리와 텐트까지 치고 아이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상을 받은 한솔초등학교 전수현 학생(5학년)은 우연히 “그림 그리기 대회를 알게 되어 사촌 언니와 참여하게 되었는데 대상을 받아 너무 기쁘다”라고 하면서 온 가족이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치원읍 중심가로 상가변영회 회장은 지역 내 문화격차를 줄이고 조치원읍을 알리고자 중심가로, 전통시장, 왕성길, 상인회 등 여러 협의체와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이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주는,누구나 와서 다양한 놀이를 즐기고 쉼을 얻을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치원 청춘문화제

Urban Regeneration News Letter  
공주시 도시재생소식지

제13호  
2019. 12.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획/편집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일       2019. 12. 2.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25, 2층  
                  (공주시보건소, CMB충청방송 옆 건물)  
전화           041\_858\_8615 ~ 6  
홈페이지   www.gongju.go.kr/urcdo